

## 안민 광주 월계중 영어 교사의 거꾸로 교실 교과서 속 핵심 표현, 애니메이션 영화로 익히는 '영꾸로 교실'

### 자유학기제 현장 돋보기

자유학기제를 발판삼아 학교 수업은 변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이 주체가 돼 수업을 이끌어가는 '거꾸로 교실'은 학생 중심 수업의 대표적인 모델로 각광받고 있지요. 이 코너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거꾸로 교실을 실천하는 교사들의 참신하고 유익한 수업 사례를 소개하고, 수업을 진행한 교사의 조언도 들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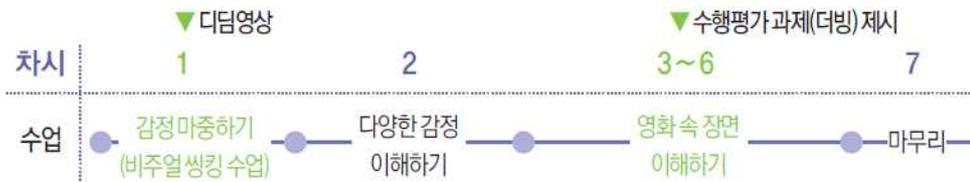
한창 사춘기에 접어든 중학생들은 시시때때로 감정이 변하는 '감정의 홍수'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 상태를 건강하게 표현할 줄 아는 학생들은 많지 않다. 안민 광주 월계중 영어 교사는 감정 표현이 서툰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바로 마주하고, 이를 조금이나마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 사람의 감정을 다룬 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영어 수업에 접목했다. △기쁨이 △슬픔이 △까칠이 △소심이 △버럭이 등 사람의 감정을 의인화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영화 내용을 활용해 학생들이 평소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생각해보게끔 한 것.

안 교사는 3학년을 대상으로 1학기에 총 7차시를 할애해 이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했다. 교과 진도를 차질 없이 소화하기 위해 수업에 활용한 다양한 영어 표현은 모두 각 단원의 핵심 표현과 문법 요소를 활용했으며, 영화 속 일부 장면에 직접 대사를 더빙하는 수행평가를 통해 원어민이 구사하는 억양과 강세를 따라 말하기 연습을 하도록 수업을 재구성했다.

▶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mailto:genie87@donga.com)

## 수업 개요

교과	영어	학기	학년 제한 없음	차시	4차시 이상
단원	제한 없음				
주요 핵심성취기준	[9영01-01]어구나 문장을 듣고, 연음, 축약된 소리를 식별할 수 있다. [9영02-08]개인 생활에 관한 경험이나 계획에 대해 묻거나 답할 수 있다. [9영04-04]개인 생활의 경험이나 계획에 대해 문장을 쓸 수 있다.				
수업 내용	1. 인간의 감정이 다양함을 이해하고 이를 나타내는 영어 표현 익히기 2. 영화를 보며 영어 대본의 빈 칸을 채우기 3. 모둠별 토의를 통해 영화 주제 이해하기 [과제] 원어문을 따라 영어 대사를 연습한 후 영화 속 장면 일부 더빙하기				



※ 디딤영상이란? 거꾸로교실에서 진행될 수업의 핵심 내용을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사가 사전 혹은 사후에 제공하는 학습 보조 영상.

## 수업은 이렇게 진행하세요



학생들은 감정 카드에 그려진 캐릭터의 표정을 따라 그려보며 인간이 가진 여러 감정을 이해하고 각각의 감정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알아간다. 광주 월계중 제공

※ 1차시 수업 전에 디딤영상을 미리 보고 올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한다.

학생들은 감정 카드에 그려진 캐릭터의 표정을 따라 그려보며 인간이 가진 여러 감정을 이해하고 각각의 감정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알아간다. 광주 월계중 제공

### [1차시] 감정 마중하기

여러 감정 상태가 표정으로 표현된 비주얼 씽킹 교구인 ‘감정 카드(카드 뒷면에는 해당 감정을 나타낸 영어 단어가 쓰여 있음)’ 수십 장을 책상 위에 깔아 놓고, 학생들에게 최근 자신의 감정 상태와 가장 가까운 표정을 고르도록 한다. 감정 카드를 고른 학생들은 교실 안을 돌아다니며 10명 이상의 학생들과 서로의 감정 상태에 대해 영어로 묻고 답하는 활동을 한다. 이 때 필요한 영어 표현은 수업 전 디딤영상을 통해 안내하며, 수업 중에도 스크린(또는 칠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감정 묻기 활동이 끝나면 모둠을 구성해 모둠별로 ‘감정 주사위’를 만든다. 준비된 주사위 전개도 (4면체 혹은 6면체)의 각 면에 모둠원들이 고른 감정 카드의 표정을 따라 그리는 것. 주사위가 완성되면 모둠별로 주사위를 활용해 ‘OO의 하루’라는 가상의 일기를 만든다. 모둠원이 번갈아가며 주사위를 던지고, 주사위를 던져 나온 감정이 들어가도록 영어 문장을 만드는 것. 이 때 교사는 ‘관계대명사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To 부정사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등 해당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문법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준다. 모둠별 일기가 완성되면 학급 전체가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교사는 주어진 조건을 제대로 충족했는지 피드백을 준다.

### [2차시] 다양한 감정 이해하기

2차시는 인간의 여러 감정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해 보는 시간이다. 우선 모둠별로 가로 5칸, 세로 5칸으로 구성된 빙고판을 나눠준다. 이 빙고판의 가로축과 세로축에는 영화에 등장하는 5개의 감정 캐릭터(△기쁨이 △슬픔이 △까칠이 △소심이 △버럭이)가 각각 들어가 있다. 교사는 이 빙고판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여러 감정이 섞인 복합적인 감정에 대해 토론해보도록 한다. 총 25개의 칸에 들어갈 정답 영어 단어를 교사가 무작위로 제시하면 학생들은 어떤 단어가 어떤 칸에 들어가야 적절한지를 모둠별 토론을 통해 찾아본다. 예를 들어 기쁨과 기쁨이 교차되는 칸에는 기쁨이 극대화된 감정 상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교사가 제시한 여러 단어 중 이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 (Ecstasy-황홀함)를 찾아 채워 넣는 것.

※ 2차시 수업에 활용한 <Emotional Overlap in Inside Out> 빙고판

	기쁨이	슬픔이	까칠이	소심이	버럭이
기쁨이	Ecstasy	Melancholy	Intrigue	Surprise	Righteousness
슬픔이	Melancholy	Despair	Self-loathing	Anxiety	Betrayal
까칠이	Intrigue	Self-loathing	Prejudice	Revulsion	Loathing
소심이	Surprise	Anxiety	Revulsion	Terror	Hatred
버럭이	Righteousness	Betrayal	Loathing	Hatred	Rage

모둠별 활동이 마무리 되면 인간의 감정을 다룬 영화 ‘인사이드 아웃’의 내용을 짧게 요약한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2차시 수업을 마무리한다.

### [3~6차시] ‘인사이드 아웃’ 주요 장면 이해하기

3차시 수업 전 교사는 생각해볼 만한 질문거리가 있는 영화 속 주요 장면을 짧게 편집해 영어 대본과 함께 준비한다. 장면을 몇 가지 준비하느냐에 따라 이 수업을 몇 차시 동안 진행할지가 결정된다(월계중의 경우 총 8개 장면을 학습했다. 한 차시 당 두 개의 장면을 학습하면서 총 4차시가 소요됐다). 학생들은 영상을 보며 두 가지 활동지를 작성한다. 각각의 영상을 보며 교사가 준비한 영어 대본의 빈 칸을 채워 넣는 딕테이션 활동과 장면별로 주어진 교사의 질문에 영어로 답변하는 활동이 그것. 딕테이션 활동 시에는 △연음 처리 △억양 △강세 등 올바른 영어 발음에 대해서도 함께 가르친다. 이 내용은 추후 더빙 과제 평가 시 평가 기준으로 활용한다.

두 번째 활동은 영화의 주제를 이해하기 위한 활동이다. 교사는 학생들이 각 장면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질문부터 각 장면이 던지는 의미를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까지 핵심적이면서도 다양한 층위의 질문을 준비한다. 질문에 혼자 답하기가 어려울 경우 모둠별 토의를 통해 답을 찾도록 한다. 답변은 영어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려울 경우 한국어로 쓰는 것도 허용한다.

**※ 질문 예시**

- Why did Joy(기쁨이) say "Stay inside of the circle" to Sadness?
- What happened after BingBong(빙봉) cried?
- What would happen when you suppress your sadness?
- What does the Expanded console mean in Riley(라일리)'s life?

**[7차시] 마무리 수업**

영화의 주제를 관통하는 질문에 대해 답해 보는 모둠별 활동을 통해 영화의 주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인간은 기쁨, 슬픔, 분노 등 단순한 감정 외에도 여러 감정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며 학생들이 느끼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님을 설명한다. 더불어 이러한 감정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공유하며 서로 공감해 가는 것이 정서적으로 중요함을 강조한다.

**평가는 이렇게 하세요**

모둠별 수행평가 과제는 딕테이션 활동에 활용한 8개의 장면 중 2개의 장면을 골라 더빙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는 수업에 활용된 영상의 대사 음량을 매우 작게 줄여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영상에 목소리를 덧입힐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Kine Master)의 사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수행평가 채점 기준 예시**

- 작품완성도(20점): 전체적인 작품의 인상을 잘 살렸는가
- 역할분배(20점): 구성원의 역할이 고르게 분배되었는가
- 전달력(20점): 원작의 발음, 속도, 강세, 억양이 잘 살아있는가
- 연기력(20점): 캐릭터에 특성에 맞춰 연기했는가
- 제출기한(20점): 정해진 제출 기한을 지켰는가



학생들이 제출한  
더빙 수행평가  
결과물

## 애니메이션 영화, 더빙하기 좋아

### Q. 이 수업의 목적은?

이 수업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학습적인 측면에서 교과서에 등장하는 영어 표현을 활용해 자신의 감정을 영어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서적 측면에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해 보는 것이다.

### Q. 수업의 효과가 있었나?

사춘기에 접어들다 보니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교사와 나누려고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 하지만 ‘감정’을 다룬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과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실제로 매 수업 시간마다 자신의 감정 상태를 우울하다고 표현한 아이들에게는 수업 외적으로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지 먼저 물어봤다. 또한 수업이 무르익어 가면서 학생들이 수업과 상관없이 “사춘기 버튼이 켜진 것 같다”며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일도 생겼다. 수업을 매개로 학생과 교사 사이에 감정 공유가 이뤄진다는 점이 이 수업의 가장 큰 효과라고 본다.

아울러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영화를 수업에 활용하면서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생들도 “영화로도 영어 수업을 한다는 점이 마냥 재밌었는데, 수업이 끝나고 보니 실제로 말하기 연습도 많이 된 것 같다”며 좋은 반응을 보였다. 만약 교과서로만 수업을 진행했다면 이와 같은 반응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 Q.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는다면?

무턱대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학생들은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1차시에 활용한 것이 바로 ‘감정 카드’다. 누구든 특정한 감정이 쓰인 카드를 골라 그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한 것인데, 감정 카드라는 실마리가 있으니 학생들도 비교적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또한 3~6차시에 각 장면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학습 활동을 할 때도 영화의 내용과 연관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영화에서 나타난 감정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질문을 많이 포함시키고자 했다. 학생들에게서 이야기를 이끌어내려면 교사가 실마리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

### Q.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3~6차시 활동에서 각 장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생각해내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질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사고나 답변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인터넷에서 영화와 관련된 평론이나 분석 글을 많이 찾아 읽어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경력이 많은 선배 교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학생들에게 이런 답변을 유도해 낼 수 있을까’하고 조언을 구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됐다.

### Q. 평가는 어떻게 이뤄지나?

이 프로젝트 수업에선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다. 1차시에 작성한 모둠별 일기는 쓰기 수행평가의 일부로

반영했고, 학생들에게 내준 모둠별 더빙 과제는 말하기 수행평가로 활용했다. 또한 3~6차시에서 학생들에게 주어진 질문을 기말고사의 주관식 문제로 출제해 수업이 평가로 연결되도록 했다.

#### Q. 다른 교사들을 위한 제언

영화 '인사이드 아웃'은 영어 수업에 감정 수업을 녹이고자 했던 목적 때문에 선정한 영화다. 만약 수업의 주제를 달리 정한다면 다른 내용의 영화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인사이드 아웃 외에도 '빅 히어로', '드래곤 길들이기' 등의 영화도 수업에 활용하기 좋다. 수업용으로는 가급적 애니메이션 영화가 좋은데, 대사에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슬랭(은어)이 적은 편이고 성우들의 발음이 정확해 딕테이션을 하기 좋기 때문이다. 딕테이션 방법도 여러가지다. 일반적인 방법처럼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며 원어민을 발음을 듣고 빈 칸을 채워 넣을 수도 있고 학생들에게 저마다 빈 칸이 다른 대본을 나눠주고 다른 대본을 가진 학생들을 짝 지어준 후 서로에게 문장을 읽어 주면서 각자 빈 칸을 채워 넣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각 장면의 의미를 놓고 토론하며 영화를 이해하게 한 후 교사가 제시한 여러 단어 중 무엇이 가장 적합할지 유추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듣기 연습, 말하기 연습, 내용 이해 등 목적에 따라 딕테이션 방법을 달리 하는 것도 좋다.

▶ 안민 광주 월계중 영어교사

미래교실네트워크([www.futureclassnet.org](http://www.futureclassnet.org))에서  
더 다양한 거꾸로 교실을 만나 보세요.

